

原子力 振興에 적극 參與

다음은 지난 6月 美國原子力學會 (ANS) 회장직 임기를 마친 R. Stinson會長이 ANS News誌에 발표한 이임 인사문이다.



Ron Stinson
〈美國原子力學會 前會長〉

내가 부회장과 회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야 할 6월이 되었습니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때를 맞이합니다. 재임기간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것을 성취했고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이 중 적지 않은 일이 성취되었으며 여러 회원들(전 회원수 16,248명)과 의견을 나누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히 좋았다고 느낀 분야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國內問題

워싱턴시는 우리 학회에게는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곳에는 정부기관, 국회, 다른 전문기관, 개편된 원자력 교역기관 등에서 우리 학회의 전문적 위치를 나는 발견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들의 참모들은 시기적절한 정확한 기술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ANS에서 원자력 표준을 현실화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ANS의 NUREG-1150평론은 주요 규제사항에 ANS가 동등한 논평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ANS는 또 일반대중들(특히 교사들)을 개몽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에게는 우리 지부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돕기 위해 ANS는 워싱턴시에 우리의 John Graham기자의외에 대표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회는 워싱턴 현지 주재를 확장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ANS 會議프로그램

내가 부임했을 때는 국가차원의 회의 개최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외에도 학회 관할문제, 기술토론회의 수준문제, 부처별 자치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정보를 수집, 배포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학회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임기중에 계획돼 있던 집행부 회의에는 거의 다 참석했었습니다.

모든 ANS 회의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됐습니다.

國際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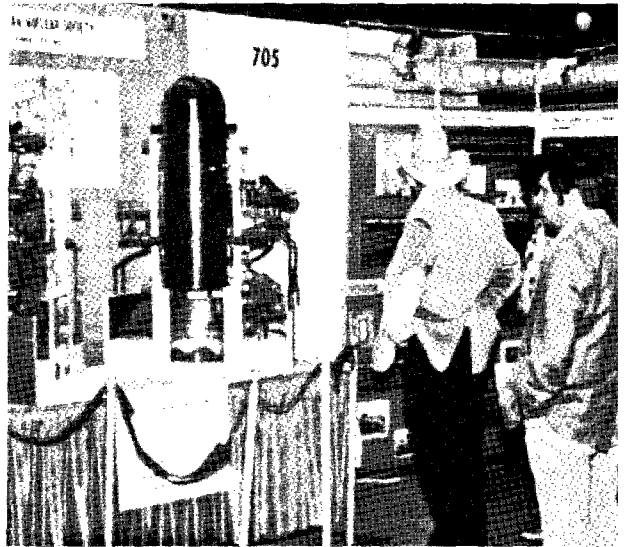
나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학회와 그 간부들에게 보여준 관심과 신임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후 미국은 기술개발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나머지 공업국들도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아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전문기관으로 국제적인 기술분야에서 우리들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관계 개선을 더욱 확대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Bertram Wolfe씨와 나는 1986년 12월에 유럽 원자력학회와 처음으로 정식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더 가꾸어져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태평양연안 제국과 기술정보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1986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체르노빌 사고와 관련된 회의에 우리 회원 여섯 사람이 참석한 이후로 소련 과학아카데미와의 교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NS의 國內活動

우리는 학회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플랜트 요원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J. Du Temple씨가 우리 학회에서 32



▲ANS주최 원자력전시회 광경

년간의 빛나는 봉사를 마치고 1990년에 은퇴할 것을 대비해 그를 대신할 이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將來展望

회장으로서의 나의 임기는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학회와 원자력발전사업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자력을 절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으로부터 확고하고 실용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가사업에 이르기 까지 기회는 많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모든 것이 개선돼 나갈 것입니다.

나의 임기중에 나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히 생각합니다.